

정부, 광주 자동차부품 전용산단 조성 나선다

무역투자진흥회의서 ... 100만대 생산기지 현실화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듯

광주시의 미래가 걸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시설인 '광주 자동차 부품 전용산단 조성계획'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 9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민선 6기 최대 역점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집제한 수출기업의 활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의 자동차 부품 전용산단 조성 등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 분야에 2016년까지 총 116조원 이상 민·관 자금을 투입, 부진에 빠진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제조업 혁신과 관련해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핵심부품 생산시설 확충 등 선제적 투자를 이끌어 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

획도 내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등 신산업 투자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하나인 광주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며, 여야 정치권의 협조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억원을 미리 반영하는 등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예산 반영이 취소되는 등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는 정부의 이번 광주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 조성 계획 발표는 예비타당성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이 정부 대책에 포함된 것은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고, 자동차 제조공장을 유치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6기 광주시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8347억원을 투입해 클린 디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네바강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추억하며

함정임 칼럼



7월 1일 밤 10시 42분, 모스크바의 레닌그라드 역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열차에 올랐다. 러시아의 아간열차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18시간 동안 이동했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후 두 번째 경험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스크바역에 내린 것은 다음날 새벽 6시 32분, 햇빛 하늘에 빛방울이 오락가락했다. 발트해와 핀란드 만을 달려 푸쉬킨의 장시 한 대목을 음송했다.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라./ 이곳에 유럽으로 향하는 창문을 내고/ 강건한 다리로 바다를 내던도록/ 자연이 우리의 운명에 지시했다./ (중략) 너를 사랑하노라, 뽀뜨르 대제의 창조물이여..."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쉬킨, '청동의 기사-뽀페르부르크 이야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뽀쉬킨 선집1 서정시와 서사시', 박형규 이대우 옮김, 숲

푸쉬킨이 노래한 대로, 페테르부르크(뽀페르부르크)는 높지를 개간해 유럽 도시를 건설한 표트르 대제(Peter the Great, 1682-1725)의 창조물이다. 페테르라 피터(베드로), 부르크 또는 그라드는 마을(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란 베드로를 수호 성자로 삼은 도시를 뜻한다.

한때 페테르부르크는 니콜라이 1세에 의하여 러시아 고유어인 페테로그라드라 불리기도 했다.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시절에는 스탈린에 의해 혁명가 레닌을 찬양하는 의미로 레닌그라드로 불렸다. 이런 사정으로, 이곳은 어느 시기의 지도나 책, 작품을 펼쳐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서 혼동될 때가 있다. 푸쉬킨의 '청동의 기사'(1833)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1866)에는 페테르부르크, 1917년 제정 러시아의 붕괴와 레닌의 10월 혁명 승리 과정을 다룬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흑백무성영화 '10월'(1927)에는 페테로그라드로 표기되어 있다.

파리에 셴 강이, 런던에 템즈 강이 흐르듯,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네바

강이 흐른다. 루브르박물관이 셴 강 중앙에, 대영박물관이 템즈 강 지척에 자리잡고 있듯, 네바 강 변에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세계적인 박물관의 소장품들은 대개 제국주의로 맹위를 떨치면서 쟁취해 온 전리품과 수집품으로 구성된다. 에르미타주의 경우, 열렬한 수집가였던 예카테리나 2세의 개인 보관소에 붙여진 이름으로, 그녀의 수집품들로 출발했다. 소장품 중 클로드 로랭의 풍경화들과 렘브란트의 '탕아의 귀환'이 대표적이다.

셴 강과 템즈 강 구별되는 네바 강만의 매력은 강을 따라 운하를 거닐고 있는 것이다. 강과 운하 주위에 자리잡은 웅장한 궁전과 박물관, 극장들은 화려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과거를 대변한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들의 읍지, 운하 뒷골목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휴식처처럼 둘러싸여 사는 고리대금업 노파와 이런 존재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더러 해로운 부류라 여겨 살해를 저지르는 무신론자이자 가난한 법학도인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음울한 청년이 배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며칠 스치듯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다. 차이코프스키 야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뽀쉬킨 선집1 서정시와 서사시', 박형규 이대우 옮김, 숲 푸쉬킨이 노래한 대로, 페테르부르크(뽀페르부르크)는 높지를 개간해 유럽 도시를 건설한 표트르 대제(Peter the Great, 1682-1725)의 창조물이다. 페테르라 피터(베드로), 부르크 또는 그라드는 마을(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란 베드로를 수호 성자로 삼은 도시를 뜻한다.

한때 페테르부르크는 니콜라이 1세에 의하여 러시아 고유어인 페테로그라드라 불리기도 했다.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시절에는 스탈린에 의해 혁명가 레닌을 찬양하는 의미로 레닌그라드로 불렸다. 이런 사정으로, 이곳은 어느 시기의 지도나 책, 작품을 펼쳐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서 혼동될 때가 있다. 푸쉬킨의 '청동의 기사'(1833)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1866)에는 페테르부르크, 1917년 제정 러시아의 붕괴와 레닌의 10월 혁명 승리 과정을 다룬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흑백무성영화 '10월'(1927)에는 페테로그라드로 표기되어 있다.

파리에 셴 강이, 런던에 템즈 강이 흐르듯,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네바



"수요집회는 계속 됩니다" 15일 오전 서울 중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118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공식 출범

10월 13일까지 확정안 국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15일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획정위가 마련한 안은 오는 11월13일까지 국회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며, 12월15일부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획정기준 설정시 ▲지역구 상하한 인구 편차 ▲지역구 선거구역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등에 관한 사항 ▲자치구·시·군을 통합한 지역

구 획정시 원칙 ▲지역구 수 증감 기준 등 5가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어떻게 정하고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등은 선거구획정 작업을 좌우할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지역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할지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벌써 합의안 도출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계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AI 이동제한 해제

전남도내 AI로 인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15일 해제됐다. 지난 6월 10일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살처분과 소독조치를 완료하고, 발생 지역 닭·오리를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지역은 5월 18일부터 오리 6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6월 10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영암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로 고병원성 AI에 대한 전국적인 이동제한도 해제돼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미래 책임질

'7대 산업' 제시

그린자동차·스마트에너지 포함

광주시가 그린자동차·스마트 에너지 등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7대 미래산업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15일 민선 6기 핵심과제이자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의 핵심전략인 '미래산업 비전 및 액션플랜' 최종보고회를 갖고 ▲미래 그린자동차산업 ▲스마트 에너지산업 ▲미래 디자인융합산업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 7개 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제시하는 '광주 미래산업전략 2022'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광주 미래산업전략 2022'에는 광·전자 기반 스마트 홈 산업, 고령 맞춤형 의료 ICT 융합산업 등 4개 산업분야의 기반산업 고도화 30개 과제와 글로벌 창의문화·관광산업 등 3개 산업분야의 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 20개 과제 등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담겨 있다.

시는 7대 미래산업의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기업 3673개, 종사자 6만2297명, 생산액 36조4822억원의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 미래산업전략 2022는 광주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실행을 통해 조기에 가지 성과를 도출해 광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화순~광주 동구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지원2동)
코스 | 너릿재 옛길 주차장~너릿재~화순 소아르 갤러리
종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가비 | 30,000원
기념품 | 타이즈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주)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 마라톤세상
주관 마라톤세상
후원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